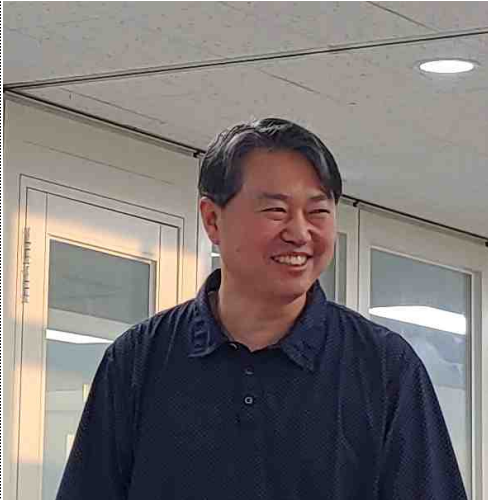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 부문별 1차 소모임 [교육-복지-공동체] 부문 보고서 -

일 시	2026년 7월 27일(월) 19:00 ~ 21:00
장 소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201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성원보고	총 15 명 중 12 명 참석
참 석 자	진행위원 : 곽부모(퍼실), 박미란(기록), 김영애(미디어) 일반단원 : 홍정희, 백성님, 이세용, 한지은, 고태희, 모지영, 강해영, 김현숙, 손영민 지원센터 : 홍윤경
미션 1. 부문별 단원 소개	
곽부모 퍼실팀장	- 소개 및 주요 경험 ▷ 고향은 청주이며, 북유럽·동유럽·러시아·중앙아시아 등 해외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뒤 청주로 돌아온 지 약 1년 6개월 됨 ▷ 현재 청원구 사천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첫째는 대학생, 둘째는 고등학생임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과 국제교육·국제교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음 ▷ 충북의 국제교육이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분야에 기여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시민계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이 토론에 그치지 않고 청주시 정책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되기를 기대함 - 퍼실팀장으로서의 다짐 ▷ 퍼실리테이터를 조력자로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원활한 논의와 활동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사진	

박미란 기록팀장	- 소개 및 활동 ▷ 흥덕구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 유아교육과를 전공해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음 ▷ 청주시활성화재단 공동체 사업에서 활동가로 참여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마을공동체 활동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며, 도서관과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음 ▷ 교육과 공동체 분야에 대한 관심과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회의가 단순히 시민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 2045년에는 현재의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람 ▷ 앞으로의 활동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서로 즐겁게 참여하며 함께해 나가기를 희망함 사 진 
김영애 미디어팀장	- 소개 및 활동 ▷ 미술을 전공했으며, 현재 여러 기관에서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기관과 대상에 따라 교육·문화 혜택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끼고,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지원함 ▷ 교육과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혜택을 누리기를 바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과 역할 ▷ 논의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바라는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 미디어팀장으로서 활동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할 예정이므로, 촬영에 대한 단원들의 양해를 부탁함

	사 진 
홍정희	- 소개 및 활동 ▷ 송절동에 거주 ▷ 세종의 연구기관에서 교육정책 분야 업무를 담당했음 ▷ 결혼 후에는 연구과제, 보고서 작성, 자료조사 등을 수행하는 프리랜서로 활동 ▷ 현재는 인스타그램에서 식생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교육정책 분야의 경험과 5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 ▷ 약 10년 전부터 사회복지를 공부해 최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했으며,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흐름에 맞는 기반이 청주에 안정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램 ▷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아이가 균등하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함
	사 진 

백성님	- 소개 ▷ 영운동에 거주하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교육·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어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AI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 복지 지원은 부족하다고 봄 ▷ 어르신들이 새로운 기술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가 연계되기를 바람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시민들이 귀한 시간을 들여 나눈 토론과 제안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함
사 진	
이세용	- 소개 및 활동 ▷ 우암동에 거주, 목사님 ▷ 오근장동에서 마을활동을 하던 중 동장님의 권유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교육청과 연계한 마을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올해 졸업함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아동복지에 관심이 많아 그동안 우리 마을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는 활동에 집중해 왔음 ▷ 노인복지에 예산과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봄 ▷ 시민계획단 활동을 계기로 마을을 넘어 청주시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고자 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20년 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방향이라도 제시하고 한 획을 그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참여하겠음

	사 진 
한지은	- 소개 및 활동 ▷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현재 금천동에 거주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 대학에 진학하면 청주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으나, 고등학교 졸업 직후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청주에 정착해 살아오게 됨 ▷ 첫째 자녀가 장애가 있어 치료와 교육기관 이용, 학교 적응 과정에 오랫동안 함께해 왔음 ▷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해원학교의 학부모회장을 맡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부모 6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밴드를 운영하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치료와 학교 적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제도적 한계를 체감함 ▷ 자녀와 자신이 청주를 떠나지 않는 한 장애아동의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주변에 장애인이 없는 경우 장애인의 필요와 어려움을 미처 고려하지 못할 수 있어, 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장애아동과 가족의 목소리가 청주의 미래계획에서 빠지지 않고 교육·복지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램 ▷ 장애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청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함 사 진 

고태희

- 소개 및 활동

- ▷ 1996년생
- ▷ 현재 청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충청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 ▷ 치과위생사로 임상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과거 연구원으로도 활동함
- ▷ 충북 청주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개소 당시 전담 치과위생사로 근무
- ▷ 장애인 구강건강 분야로 석사학위를 취득함
- ▷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를 이어왔으며, 약 10년간 요양원과 장애인시설 등에서 봉사 및 구강보건교육을 해옴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 AI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계층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봄
- ▷ 장애와 노화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으므로, 장애아동·장애인·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내에 넓은 구강보건교육실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민간 운영기관의 내부 결정으로 교육 추진이 제한되고 공간도 창고처럼 활용되는 현실을 경험함
- ▷ 현장의 필요를 시·도 차원에 지속적으로 전달했지만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 ▷ 학과 차원에서도 교수들이 요양원과 입소시설을 찾아 교육하고 있으나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한계를 느낌
- ▷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결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통합돌봄과 복지정책에서 구강건강이 빠지지 않고 주요 영역으로 다뤄지기를 바람
- ▷ 비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과 관리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함

사진



모지영

- 소개 및 활동

- ▷ 거주지는 흥덕구 오송이지만 직장과 주요 활동지역은 청원구이며, 청원구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왔음
- ▷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석사과정까지 이수한 뒤 현장 근무와 운영을 이어왔으며, 20년 만에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함
- ▷ 청주 출신은 아니며 결혼 후 청주에 정착함
- ▷ 두 아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껴 인근 도시의 놀이터를 자주 찾아다님 (현재 아이들은 고2, 중3)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 현재 박사과정에서 실외놀이터를 연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매일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일상적인 놀이권이 유지되는 환경에 관심이 많음
- ▷ 놀이터 사례
세종 땀범벅놀이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한 놀이터 사례로 주목함.
서울 성수동 숲놀이터·모래놀이터: 자연 속에서 활동적인 놀이와 모래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
청주 무지개어린이공원: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된 공간이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봄.
- ▷ 청주시의 ‘꿀잼도시’ 관련 단발성 행사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청주시의 공공놀이터와 실내놀이터를 분석해 놀이 특성과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놀이 지도를 만드는 것을 장기적인 연구목표로 두고 있음
- ▷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놀이환경을 만드는 일이 청주에 정착해 살아가는 여건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 청주에 이미 조성된 놀이공간이 더 잘 알려지고 활성화되며,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놀이공간이 확대되기를 바람
- ▷ 자신의 목소리가 비록 작더라도 청주의 미래계획에 작은 선 하나라도 남아 2045년에는 실현되기를 기대함

사
진



강해영	- 소개 및 활동 ▷ 성화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복지·공동체 분야 중 복지 분야에 관심 ▷ 성화동에서 요양원을 13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활동도 하고있음 ▷ 요양원 운영 이전에는 행정업무를 담당해 복지행정 관련 실무 경험을 갖고 있음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치매와 노인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요양원 입소자뿐 아니라 지역에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두고 있음 ▷ 복지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 일반시민도 치매를 이해해야 주변의 치매환자를 발견하고 적절히 도울 수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치매와 노인복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높아지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복지정보와 서비스가 적절히 연결되기를 바람 ▷ 자신의 현장 경험과 행정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사 진	
김현숙	- 소개 및 지역 정착 ▷ 서울 출신이지만 결혼 후 청주에 정착해 두 자녀를 키웠으며, 현재는 서울보다 충북에서 생활한 기간이 더 길어 스스로를 충북 사람이라고 생각함. ▷ 남편도 청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가족과 함께 청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고 있음. - 학교 근무 및 이동 흐름 ▷ 제천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진천중학교와 증평정보고등학교(현 증평비즈니스고등학교) 등 외곽지역 학교에서 근무함 ▷ 이후 청주지역 중학교와 일반계·특성화고등학교를 오가며 근무했으며, ▷ 다시 서원중학교로 돌아오면서 지역과 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체감함 ▷ 여러 학교에서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만나며 교육현장의 격차와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경험함

김현숙	- 교육 분야의 문제의식과 참여 동기 ▷ 교사가 학교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와 교육정책이 함께 변하지 않으면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느낌 ▷ 충북이 교육부의 새로운 제도와 시범사업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와 학생들이 초기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겪는다고 봄 ▷ 새로운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지역의 교육현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직에서 물러난 뒤 교육에서 손을 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청주와 충북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답답함으로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청주와 충북의 교육현장 경험이 정책 논의에 반영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람 ▷ 자신이 계속 살아갈 지역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필요한 목소리를 솔직하게 전달하고자 함
사 진	
손영민	- 소개 및 활동 ▷ 1970년생 ▷ 약 27년간 직장생활을 한 뒤 올해 4월 말 퇴직해 현재는 반은퇴 상태임 ▷ 현재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 일을 함께 돕고 있음 ▷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세용 단원의 권유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하게 됨 - 관심 분야와 참여 동기 ▷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어 아동과 공동체 분야에 관심이 있음 ▷ 부모 세대가 치매와 질병을 겪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적절한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도 관심을 갖게 됨 ▷ 퇴직 후 마땅한 활동과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장년·시니어를 위한 일거리와 복지 연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손영민 사 진	- 시민계획단에 바라는 점 ▷ 워크숍에서 일부 사람만 논의를 주도하지 않고 모든 단원이 고르게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람 ▷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난상토론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의견을 끌어내기를 기대함
---------------------------	---

미션 2. 부문별 주요 현안 공유

현안	제안자	세부 내용
1. 장애아동의 생활권 중심 특수교육·돌봄 기반 확충	한지은	-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교육시설 확충 : 특수학교의 현실 ▷ 청주에는 혜원학교, 이은학교, 청주맹학교, 혜화학교, 성신학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자는 증가하는데 특수학교 수가 부족해 과밀 심화 ▷ 혜원학교는 기존 교실 부족으로 운동장에 2층 모듈러 교사(교실)를 설치해 3~4년 이상 사용하고 있음 ▷ 이은학교도 혜원학교에서 분리·신설됐으나 이미 과밀 상태임 ▷ 모듈러 교사(교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특수학교 추가 확충이 필요
	한지은	- 특수학교 과밀 해소와 교육시설 확충 : 특수학교 신설의 한계 ▷ 지역사회와의 반대로 특수학교가 외곽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음. ▷ 장애학생이 통학버스를 1~2시간씩 이용해야 해 통학 부담이 큼. ▷ 이은학교 신설 이후 추가 특수학교 논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한지은	- 구도심 학교 유휴공간의 특수교육 활용 ▷ 신규 아파트지역에는 학교가 신설되는 반면, 구도심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유휴공간이 늘고 있음 ▷ 구도심 학교의 빈 교실과 폐교부지를 특수학교나 특수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상당초등학교 이전 부지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옛 상당초는 2027년 8월 개원이 목표인 가칭 '미래융합체험교육원'으로 조성  [충북일보] 옛 상당초·북대초 지역교육 문화 거점 재탄생 [충북일보] 옛 상당초등학교와 옛 북대초등학교가 창의예술·스포츠·특... www.inews365.com
1. 장애아동의 생활권 중심 특수교육·돌봄 기반 확충	이세용	- 신규 아파트단지 내 장애아동 교육·돌봄 공간 확보 ▷ “아동복지법은 피로 세워진다”는 말처럼 아동정책은 사후 대응에 머무르기 쉬우며, 투표권이 없는 아동의 요구는 정책에서 뒤로 밀릴 수 있음 ▷ 구도심 학교의 유휴공간 활용보다 <u>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단계에서 장애아동 교육·돌봄 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방식을 제안함</u> ▷ 단지 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의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조례화 → 신규 아파트단지 내 장애아동 교육·돌봄 공간 확보 조례제정 (청주시 제안) ▷ 장애아동이 거주지 가까운 생활권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김영애	-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애아동 통합돌봄 확대 ▷ 청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기존 센터에 장애아동 통합돌봄 공간이나 별도 지원체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가까이에서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방학·학기 중 초등 자녀 걱정, 청주시 다함께 돌봄센터가 덜어드... blog.naver.com

1. 장애아동의 생활권 중심 특수교육·돌봄 기반 확충	모지영	-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와 통합교육 활성화 ▷ 특수학교 신설은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각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확대·활성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 ▷ 일반학교에서도 보조교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을 배치해 통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지은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현실적 한계 ▷ 특수학급 신설·증설은 교육청 소관이며, 학교장 재량이 크게 작용 ▷ <u>초등학교와 유치원</u>에는 특수학급이 비교적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특수학급 신설과 증설에 소극적임 → 특수학급 정원이 가득 찬 상황에서도 중간 전입 학생을 수용해야 해 특수교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u>중·고등학교</u>는 좀 더 방어적, 교과교사의 허락 없이는 보조인력이 수업에 들어가기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됨 →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폭력과 적응 문제 등이 발생해 특수학교로 이동하는 학생이 늘고 있음 ▷ <u>사립학교</u>는 교육청 지원을 받더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까운 학교를 두고도 먼 학교로 통학하는 사례가 발생함
	백성님	- 장애학생의 성장단계에 맞는 전문 지원인력 확충 ▷ 장애학생은 실제 나이와 발달·기능 수준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 신체가 성장할수록 활동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1대1 지원인력의 필요성이 커짐 ▷ 활동지원사와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 달라,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을 함께 배치해야 함 ▷ 관련 조례와 운영기준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배치를 확대해야 함
	한지은	- 현장 요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특수교육 행정 ▷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경계성 지능 학생과 관련한 요구를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음 ▷ 교육청은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데 소극적이며, “전례가 없다”, “기준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행정이 필요함

2. 장애인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교육·복지 지원	모지영	-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인식 확장의 계기 ▷ 장애아동 지원을 주로 유아·초등학생 중심으로 생각했으나, 논의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지원 공백을 새롭게 인식함 ▷ 중·고등학교에서는 지원 부족으로 자퇴하거나 학교생활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장애학생 지원을 전 연령으로 확장해 바라보는 열린 생각의 기회가 됨
	한지은	- 발달장애 청소년의 시설·프로그램 이용권 보장 ▷ 일반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 발달장애 청소년은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보호자 출입 제한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이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청소년 시설·행사·프로그램 기획 시 발달장애 청소년의 보호자 동반을 허용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지은	- 장애아동 부모의 생애주기별 정보공유체계 마련 ▷ 자녀의 현재 치료와 학교생활에 집중해 상급학교 진학 이후의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움 ▷ 자녀가 중·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육·복지정보 부족이 커짐 ▷ 필요한 제도·기관·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장애아동 부모 밴드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음 ▷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한지은	- 장애인복지관 부족 ▷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주민이 이용하며 프로그램이 주로 연령별로 구성됨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유형과 발달·기능 수준을 고려해 프로그램과 반을 구성할 수 있음 ▷ 따라서 발달장애인은 종합사회복지관이 가까이 있어도 프로그램이 맞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고, 멀리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함

3.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 격차 해소	백성님	- AI·디지털 생활기기의 이용 편의성 개선 ▷ 보일러 고장 후 조작기가 신형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됐지만, 고령의 어머니가 사용법을 이해하지 못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함 ▷ 가족에게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미안해 추운 겨울에도 한동안 난방 없이 지낸 사례임 ▷ 이러한 어려움은 고령층뿐 아니라 장애인·아동·치매노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설계와 이용자 특성에 맞춘 생활 밀착형 안내·지원이 필요함
	백성님	- 고령층을 위한 단계적·반복적 디지털 교육 ▷ 고령층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단번에 익히도록 요구하기보다, 천천히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안내해야 함 ▷ 아동을 가르치듯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듣고 말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반복 인지방식이 필요함
	한지은	-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활용기준 마련 ▷ AI는 쉬운 말로 바꾸는 등 장애아동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과도한 디지털 기기·웹 사용은 흥분이나 집착을 높일 수 있음 ▷ 학교에서도 일률적으로 디지털 활용을 요구하기보다 장애 특성에 맞춘 이용 기준이 필요함
4. 치매·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돌봄 연계	강해영	- 치매·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과 공공후견 지원 확대 ▷ 치매는 증상이 심화되기 전 경증 단계에서 조기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 ▷ 독거노인은 인지기능 저하나 위기상황이 발생해도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움 ▷ 대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지원 절차를 알기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개인 자격에서 직접 나서기도 어려움 ▷ 이에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인 자격으로 독거노인을 방문해 생활과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음 ▷ 한 사람이 여러 지역과 대상자를 모두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사각지대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4. 치매·독거노인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돌봄 연계	백성님	- 통장을 활용한 독거노인·치매 의심자 조기발굴 ▷ 일반 주민은 대상자를 알고 있어도 개인정보 문제와 공식 권한 부족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개입하기 어려움 ▷ 통장은 공식적인 지역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의 신뢰가 높아 독거노인의 생활상황을 확인하기에 적합함 (공적인 역할과 권한 중요) ▷ 연령대가 비슷해 포레상담이나 노노케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 어르신과의 소통과 인지 확인에 유리함 ▷ 통장을 대상으로 치매 징후, 위기가구 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복지기관 연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교육받은 통장이 독거노인과 치매 의심자를 조기에 발굴해 관계기관에 연계하도록 해야 함 ▷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기존 통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역할 확대에 맞춰 활동비와 행정지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백성님	- 기존 돌봄자원을 연계한 청주형 맞춤형돌봄체계 구축 ▷ 위기가구 발굴 이후에는 새로운 제도를 별도로 만들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체계와 연계·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함 ▷ 정책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 (통장, 생활지원사, 기타 자원 등)을 시키고 현재 운영 중인 돌봄체계와 연계하여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청주형 돌봄 연계체계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 ▷ 모든 생애과정을 한 번에 지원하는 완전한 체계보다, 필요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 돌봄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음
	박미란	- 주민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중간 연계체계 마련 ▷ 고립장애인 친구활동, 치매안심센터 방문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활동자 외에는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통장은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와 당사자 의사 문제로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통장이 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전문기관에 대상자를 연계하면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함 ▷ 현재 운영 중인 돌봄서비스와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중간 연계체계가 필요함
	모지영	- AI 음원을 활용한 치매 조기검사 홍보 ▷ 어르신들이 치매검사 방법과 이용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AI로 짧고 반복적인 홍보 음원을 제작할 것을 제안함 ▷ “깜빡할 때는 치매검사”와 같이 기억하기 쉬운 문구를 노래나 음원으로 만들어 청주시 전역에 반복 홍보 ▷ 음원을 통해 치매 조기검사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고, 간단한 자가검사나 치매안심센터 이용으로 연결되도록 함

5. 생활권 중심의 복지정보 플랫폼과 서비스 연계	곽부모	- 청주시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 시에서 돌봄인력 교육과 협의체 간 정보공유를 지원하는 복지정보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지은	- 생활권별 사회복지관의 정보공유 창구 역할 ▷ 지역마다 사회복지관이 있다면 아동·청소년·노인 등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복지정보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음. ▷ 사회복지관이 지역 내 복지기관·돌봄서비스·교육정보를 모아 주민에게 안내하는 생활권 단위 정보공유 창구 역할이 가능할 것
6. 중장년·시니어의 경력 연계형 일자리 기반 구축	손영민	- 퇴직 후 중장년·시니어의 일자리 선택지 확대 ▷ 40~60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연령이지만, 퇴직 후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 재취업 선택지가 사회복지·경비 등 일부 직종에 한정되거나, 기존 경력을 역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음 ▷ 고용기관의 상담과 알선이 있어도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움 ▷ 중장년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재취업, 창업 지원을 통합한 시스템이 필요함 ▷ 2045년에는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주시 차원의 중장년·시니어 일자리 기반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취약계층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통합돌봄 연계	고태희	- 통합돌봄과 연계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관리체계 마련 ▷ 장애인과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은 구강건강 정보와 교육에서 소외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구강보건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관 내부 사정으로 교육 추진이 제한되고 공간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 및 사업과의 연계가 부족해 일회성 활동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장애아동·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과 관리가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통합돌봄과 복지정책에 구강건강을 주요 지원영역으로 포함할 필요
8. 아동의 일상적 놀이권과 생활권 놀이환경 조성	모지영	- 생활권 중심의 놀이공간 확충과 놀이정보 공유 ▷ 아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매일 이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놀이공간이 부족함 ▷ 단발성 행사보다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놀이터와 실내놀이터가 중요함 ▷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된 놀이공간이 있어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활용이 낮은 경우가 있음 ▷ 자연놀이·모래놀이·활동놀이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놀이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주시 공공놀이터와 실내놀이터의 위치와 놀이 특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놀이 지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민계획단 활동 기록



단원소개



현안 의제 공유 (1)



현안 의제 공유 (2)



현안 의제 공유 (3)



현안 의제 공유 (4)



현안 의제 공유 (5)



현안 의제 공유 (6)



단체사진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부문별 1차 소모임 참석 명단

- 일 시 : 2026년 7월 27일(월) 19:0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201호

[교육 · 복지 · 공동체] 부문

※ 부문별 팀 일반단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접수번호	이름	생활권	진행위원	서명
1	95	곽부모	청원	퍼실팀장	37
2	158	박미란	흥덕	기록팀장	박미란
3	120	김영애	도심	미디어팀장	김영애
4	2	백성남	상당	일반단원	백성남
5	31	이제인	서원	일반단원	-
6	40	한지은	상당	일반단원	한지은
7	89	이정현	청원(오창)	일반단원	-
8	97	김현숙	서원	일반단원	김현숙
9	107	모지영	흥덕(오송)	일반단원	모지영
10	131	강해영	서원	일반단원	강해영
11	142	이세용	청원	일반단원	이세용
12	162	홍정희	흥덕	일반단원	홍정희
13	168	손영민	청원	일반단원	손영민
14	180	고태희	청원	일반단원	고태희
15					